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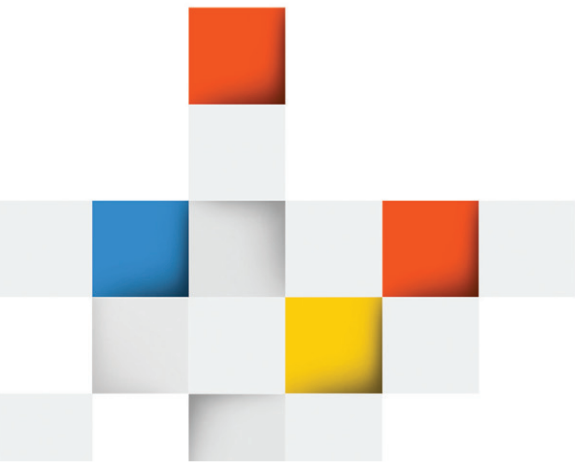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19

<http://sri.kostat.go.kr>

# 2019



통계청

통계개발원

# 1인가구의 삶의 질

변미리 (서울연구원)

- 1인가구는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가구의 29.3%를 차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가구유형으로 부상했으며, 우리 사회는 1인가구와 2인가구 중심의 '축소가구'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전체 1인가구 중 30-40대 1인가구가 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 되어 있는 50-64세 1인가구는 25.1%로 65세 이상 고령 1인가구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1인가구는 경제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이며,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주거문제와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등이 1인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분야이다.
- '스스로 선택한' 1인가구보다 '비자발적' 1인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향후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과제이다.

한국 사회의 인구와 가구 특성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하나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공급의 감소에 관한 것으로, 이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인구 규모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은 타당해 보인다. 다른 하나는 가구구조에 관한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가구유형이 4인가구에서 1인가구와 2인가구

중심의 소형가구로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억해보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우리 사회의 캠페인이었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떠 보니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로 이미 들어와 있다.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혼자 살아간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집단별로 이질적인 1인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슈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가구유형으로 자리 잡은 1인가구의 삶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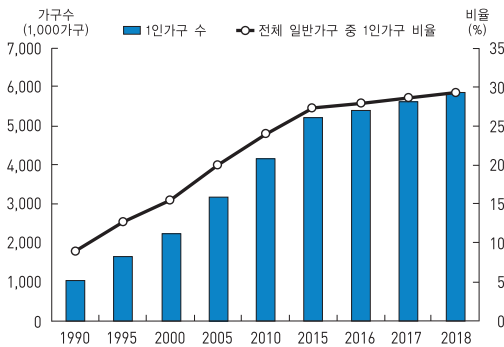
## 1인가구, 우리 사회의 ‘보통가구’로 성장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사람들’로 정의되는 1인가구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일반가구의 27.2%를 차지해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으며, 2018년 현재 585만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2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나타난 것이다. 1990년 우리 사회의 1인가구 비율은 전체 일반가구의 9.0%에 불과했으나, 10년이 지난 2000년에는 222만 가구로 증가하여 전체 일반가구의 15.5%를 차지하였고, 불과 5년 후인 2005년에는 전체 일반가구의 20.0%에 달했다.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세 가구 중 한 가구인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그림 II-29).

[그림 II-29] 1인가구 수와 비율, 1990-2018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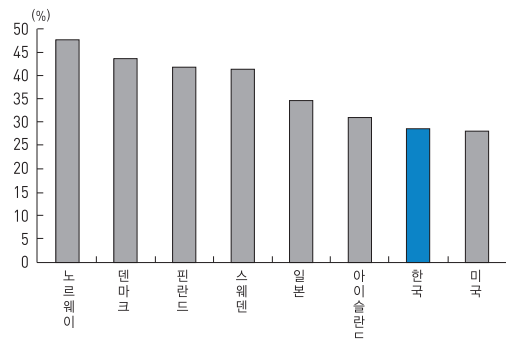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가구유형은 부모와 2명의 자녀로 이뤄진 4인가구였다. 2010년에는 2인가구가 24.3%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부상해 소형가구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5년이 지난 2015년에 1인가구가 27.2%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사회’가 일반화되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 전반적인 만혼 현상,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

는 경제환경의 변화, 교육환경 요인으로서의 기러기 가족 현상, 중장년 이혼율의 증가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얹히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도시화가 성숙단계에 이른 많은 세계 주요 도시나 국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북유럽 국가들로 2017년 기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의 1인가구 비중은 각각 47.5%, 43.5%, 41.7%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도 34.5%에 달하며,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27.9% 수준이다(그림 II-30). 통계청이 2019년에 추정 한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 비중은 2047년 37.3%까지 증가해 832만여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때가 되면 1인가구와 2인

[그림 II-30] 한국, 일본, 미국 및 북유럽 국가의 1인가구 비율, 2017



주: 1) 1인가구 비율은 해당 국가 전체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2) 북유럽 국가의 경우 「EU-SILC survey」 자료 이용. 그 외 국가는 각국 센서스 자료를 이용함.  
 3) 일본은 2015년 자료이고, 아이슬란드는 2016년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7.  
 European Commission,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Statistics of Japan, e-Stat(<https://www.e-stat.go.jp/en/>).  
 U.S. Census Bureau(<https://www.census.gov/>).

가구 중심의 소형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72.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혹은 둘이 사는 것이 일상이 되는 새로운 모습의 사회로 변화되는 것이다.

## 1인가구의 특성

### 성별 · 연령별 분포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남성은 291만 가구, 여성은 294만 가구로 여성 1인가구가 더 많다. 1인가구의 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남성 95만 가구, 여성 128만 가구로 10여 년 전에는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더 많아, 지난 10여 년 사이 남성 1인가구의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2000-2018년 사이 남성 207.5% 증가, 여성은 130.0% 증가).

2018년 현재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40대 1인가구가 전체 1인가구의 31.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0-64세의 1인가구가 25.1%,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가 24.7%, 20대 이하 1인가구가 18.4%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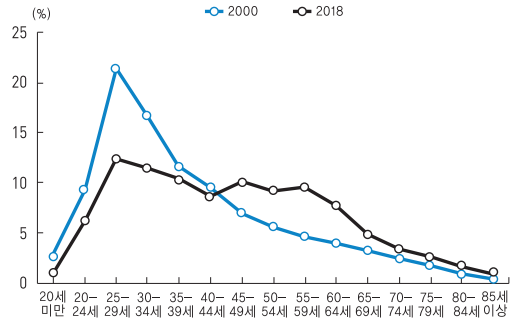
1인가구의 연령 분포를 성별로 나누어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II-31]과 같다. 남성의 경우 2000년에는 20-30대의 비중이 58.6%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2018년에는 20-30대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40대부터 60대 초반의 중장년층 비중이 늘어났다. 여성의 경우 2000년에는 60-70대 고령층과 20대 청년

층 비중이 높았는데, 2018년에는 60-70대 비중이 줄고, 40대 후반과 50대의 중장년층과 75세 이상 초고령층의 비중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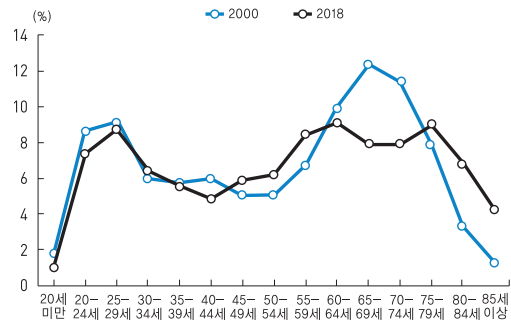
남녀 모두 중장년층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증가는 중장년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혼율, 가족의 해체, 기러기 가족으로 대표되는 교육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II-31] 1인가구의 성 및 연령별 분포, 2000, 2018

#### 1) 남성



#### 2) 여성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혼인상태별 분포

1인가구의 혼인상태 분포를 통해 1인가구 증가 현상을 추론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



르면, 2015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혼인상태는 미혼이 43.8%, 이혼이 15.5%, 사별이 29.5%, 배우자있음이 11.1% 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2000년과 비교하면 이혼은 5.7%p 증가했고, 사별은 5.6%p 감소했으며, 미혼과 배우자있음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이다(그림 II-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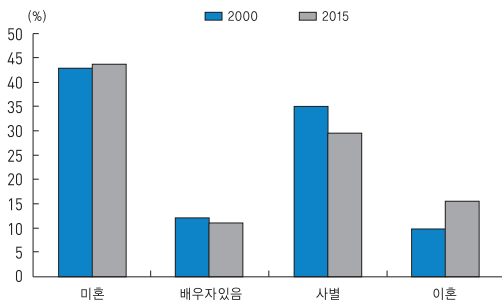
1인가구의 연령집단별 미혼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25-34세 94.7%, 35-44세 74.4%, 45-54세 36.3%로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늦게 하거나(晩婚) 혹은 하지 않는 비혼(非婚)으로 인해 1인가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5-44세,

45-54세 집단의 2000년 기준 미혼 비율이 각각 48.3%, 15.5%로 이들 연령층에서 지난 15년 동안 미혼이 빠르게 증가했다(그림 II-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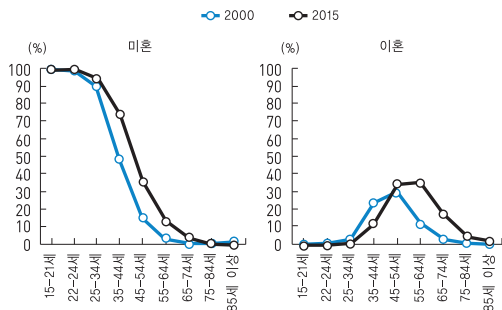
1인가구의 연령집단별 이혼가구 비율은 44세 이하의 감소하고 45세 이상은 증가했다. 2015년 이혼가구 비중이 가장 큰 연령집단은 55-64세로 35.2%가 이혼가구이며, 45-54세의 34.1%, 65-74세의 16.2%, 35-44세의 12.1%가 이혼가구이다. 2000년에 65-74세에서 이혼가구는 3.0%에 불과했다. 이렇듯 혼인상태의 변화, 즉 가족형성의 지체나 비혼, 이혼 등의 이유가 고령화 요인과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1인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II-32-2).

[그림 II-32] 1인가구의 혼인상태 분포, 2000, 2015

1) 혼인상태별 구성비율



2) 연령집단별 미혼 및 이혼 가구 비율



주: 1) 2000년 자료는 미상 제외. 2015년 자료는 20% 표본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도자료, 2018. 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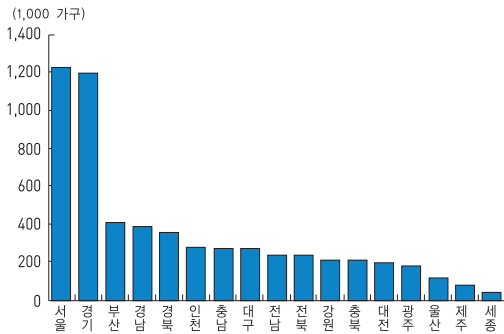
지역별 분포

발전된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의 1인가구 규모에 비해 도시지역의 1인가구 집중도가 두드러진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1인가구 비율과 서울 등 대도시의 1인가구 비율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1인가구의 규모에 있어서는 수도권 집중성이 뚜렷하다. 서울과 경기 두 지역의 1인가구 규모가 가장 큰데, 2018년 서울 1인가구는 122만 9,421가구, 경기도는 119만 7,586가구로 두 지역의 1인가구를 합하면 전체 1인가구의 41.5%를 차지한다(그림 II-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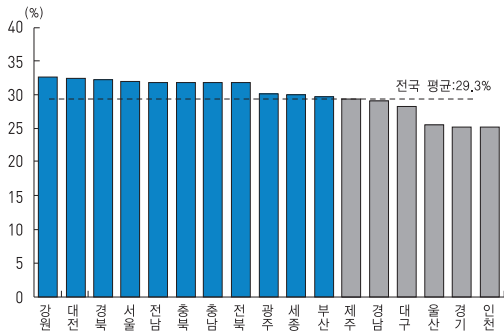
시도별로 전체 일반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 지역은 강원, 대전, 경북, 서울, 전남북, 충남북, 광주, 세종 등이다(그림 II-33-2).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들은 인

[그림 II-33] 1인가구의 시도별 분포, 2018

1) 시도별 1인가구 수



2) 시도별 1인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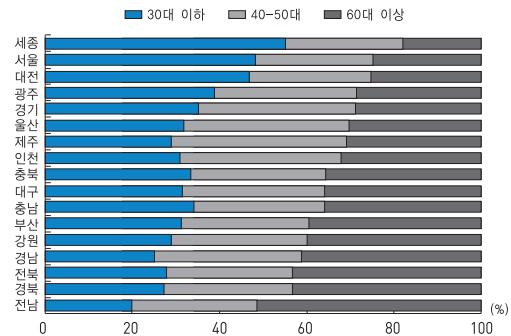


주: 1) 1인가구 비율은 해당 시도 전체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8.

구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림 II-34]에 제시된 시도별 1인가구의 연령 분포를 보면, 강원, 경남북, 전남북 등은 주로 고령층 1인가구 비중이 높지만, 대전, 서울, 세종 등은 젊은 연령층 1인가구 비중이 더 높다. 1인가구 규모가 가장 큰 서울의 경우 남녀 모두 20대 중후반의 비중이 가장 크다. 대전의 경우 젊은 연령층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은 세종시 형성과 함께 직업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북, 전남북 등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 1

[그림 II-34] 시도별 1인가구의 연령 분포, 2018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8.

인가구 비중이 높은 것은 고령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1인가구의 특성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청년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 고령 1인가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지역별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 1인가구의 삶의 질

### 경제활동과 주거

통계청의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1인가구 중 61.1%가 취업상태에 있다. 특히 취업자 중 50-64세 중장년층 비중이 26.6%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57.7%,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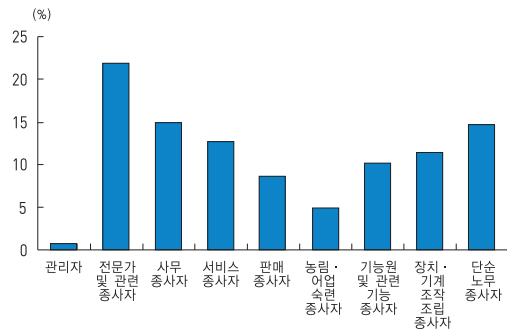


성 42.3%로 남성 취업자가 여성에 비해 15.4%p 높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1인가구의 월 임금수준별 분포를 보면, 100만 원 미만이 11.3%, 100-200만 원 미만이 24.6%, 200-300만 원 미만이 35.7%, 300-400만 원 미만이 17.1%, 400만 원 이상이 11.3%로 임금근로자 1인가구의 35.9%가 200만 원 미만 소득자이다. 취업자 1인가구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53.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가 25.8%, 비임금근로자가 21.0%로 나타난다(그림 II-35).

취업자 1인가구의 직업 분포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1.9%, 사무 종사자 14.9%, 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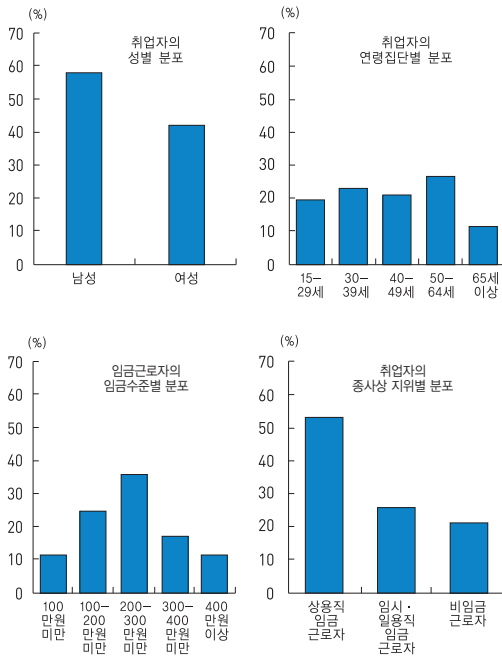
노무 종사자 14.7% 순으로 1인가구 내부에 이질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인가구 전체를 관통하는 경제적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는 ‘빈곤’이지만, 1인가구 중 일부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혼자 사는 삶’을 누리는 ‘자발적 1인가구’도 있다(그림 II-36).

[그림 II-36] 취업자 1인가구의 직업 분포, 2018. 10.



출처: 통계청,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및 1인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2019. 6. 25.

[그림 II-35] 1인가구의 취업상태, 2018. 10.



출처: 통계청,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및 1인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2019. 6. 25.

1인가구의 삶의 질을 관통하는 일반적인 문제 중 한 축이 ‘빈곤’으로, 위에서 살펴본 경제활동에서 1인가구의 경제환경의 질이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인가구의 삶의 질에서 주거환경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도시에서 1인가구의 주거는 거처의 종류와 점유형태에 따라 일상생활의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 1인가구가 많이 느끼는 안전의 문제, 청년 1인가구의 정주성 등은 주거환경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1인가구의 주거특성은 일반 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다. 2018년 기준 1인가구의 거처

의 종류별 분포를 보면, 단독주택이 47.2%, 아파트가 29.9%,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10.9%이다. 일반가구는 단독주택이 32.1%, 아파트가 50.1%,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11.6%이다. 물론 1인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2000년 70.2% → 2010년 59.4% → 2018년 47.2%) 여전히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편이다(그림 II-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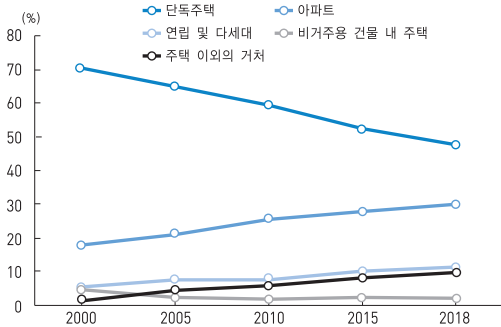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주거의 질은 더욱 열악하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9~34

세 청년 1인가구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6.2%, 전세 21.8%, 보증부 월세 56.8%, 보증금 없는 월세 9.8%, 무상 5.4%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1인가구의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일반가구(20.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선 외, 2017). 또한 이들은 원룸이나 지하·반지하·옥탑방, 쪽방 등 주거취약 형태로 분류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2016년 기준 청년 1인가구 10명 중 7명은 원룸(68.9%)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은 6.7%로 일반가구 평균(3.9%)보다 높다(표 II-3). 이러한 취약한 주거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높아 대도시 지역 청년 1인가구의 주거의 질이 열악하다(박미선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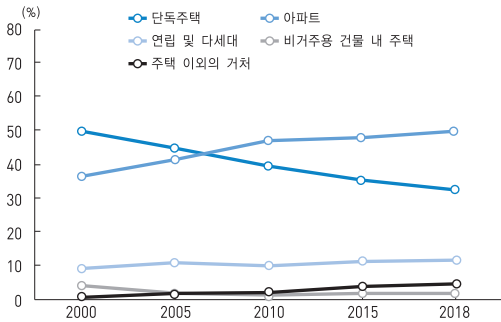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의 관련성은 대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

[그림 II-37] 1인가구와 일반가구의 거처의 종류, 2000~2018

#### 1) 1인가구



#### 2) 일반가구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II-3〉 지역별 주거취약 청년 1인가구 비율, 2016

(%)

구분	원룸	주거취약	지하·반지하·옥탑방	쪽방
일반가구	9.4	3.9	3.1	0.4
청년 1인가구	68.9	6.7	5.4	1.1
서울	69.0	15.7	12.3	3.5
수도권	70.4	11.6	9.7	2.0
지방	67.0	0.4	-	-

주: 1) 청년 1인가구는 19~34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주거취약에는 지하·반지하·옥탑방과 쪽방 그리고 3인 이상 쓰는 단칸방 등을 포함. 3인 이상 단칸방은 그 비율이 낮아 따로 표기하지 않음.

3)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출처: 박미선 외, 2017.





난다. 특히 서울시 1인가구의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이 사실이 좀 더 분명해진다. 2017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17.6%, 전세 22.9%, 보증금 있는 월세 45.9%, 보증금 없는 월세 10.2%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다인가구(2인, 3인 이상)는 자가 비중이 50%를 넘으며, 보증부 월세는 2인가구가 21.8%, 3인 이상 가구는 12.3%로 나타나 1인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서울시, 2018).

### 사회활동과 주관적 만족감

1인가구의 삶의 질과 관련한 또 다른 한 축은 ‘고립’의 문제이다. 대개 사람들은 여러 사회활동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가족이 형성된 가구의 경우 혈연으로서의 가족 연결성이 존재하며 종교 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와 연계해 고립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1인가구의 사회활동도 일반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낼까?

〈표Ⅱ-4〉에 제시된 2015년 기준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6.8%로 전체 인구(20세 이상) 중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인 69.0%보다 더 높다. 성별로는 남자 75.0%, 여자 78.3%가 아무런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낮았다. 특히 남성 1인가구의 경우 2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의 사회활동 참여가

가장 낮았으며, 여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20대와 30대 그리고 70대 이상에서 사회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를 보면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 등이 1인가구가 직면한 문제라는 결과가 많다. 1인가구의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활동은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 ‘고립’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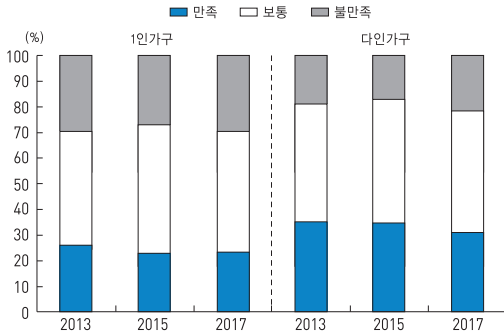
〈표Ⅱ-4〉 1인가구의 성 및 연령집단별 사회활동 참여율, 2015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b>남성</b>							
참여함	25.0	22.8	25.7	27.2	26.8	24.5	19.6
참여 안함	75.0	77.2	74.3	72.8	73.2	75.5	80.4
<b>여성</b>							
참여함	21.7	19.0	21.4	24.7	28.0	27.2	16.5
참여 안함	78.3	81.0	78.6	75.3	72.0	72.8	83.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1인가구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할까?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자료를 보면, 1인가구의 23.3%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보통 47.1%, 불만족 29.7%로 나타났다. 이러한 1인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다인가구 가구원의 30.8%가 만족하다고 응답). 또한 1인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다(그림Ⅱ-38).

[그림 II-38]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가구원의 주관적 만족감, 2013-2017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소비와 여가, 일상생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은 1인가구를 부러워한다. 1인가구는 혼자 별지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모든 걸 소비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1인가구의 소비 양상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들여다보자. <표 II-5>에 제시된 것처럼, 1인가구는 일반적인 가구에 비해 주거·수도·광열비 및 음식·숙박비의 지출 비중이 높다. 1인가구의 소비 지출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본 생활비(음식, 숙박, 주거, 교통)에 대부분을 소비한다. 특히 중장년층 및 고령층의 경우 먹고(식료품) 사는(주거, 수도, 광열) 항목이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1인가구는 혼자 사는 자유로움을 누리하고자 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기개발 교육

이나 오락문화 등의 항목에 기꺼이 비용을 지출할 여유가 없다.

〈표 II-5〉 전체 가구와 1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 2017

	전체 가구	1인가구					
		전체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	14.1	12.7	7.1	8.3	9.9	13.8	25.0
주류·담배	1.4	2.2	1.7	2.4	2.8	2.8	1.5
의류·신발	6.2	6.0	6.5	6.9	6.7	5.2	4.4
주거·수도·광열	11.1	18.1	19.8	15.9	16.1	17.1	21.4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4	3.4	2.3	3.0	3.4	4.4	4.2
보건	7.1	6.6	3.0	4.5	5.0	8.3	12.6
교통	14.4	12.9	12.2	16.6	15.9	12.8	7.0
통신	5.4	4.6	5.3	5.1	4.7	4.3	3.4
오락·문화	6.8	6.9	8.7	8.5	6.6	5.6	4.6
교육	7.4	3.1	7.6	1.0	3.2	3.1	0.2
음식·숙박	13.9	16.6	20.0	21.1	18.2	15.0	8.2
기타 상품·서비스	7.9	7.0	5.8	6.8	7.5	7.6	7.4

출처: 통계청,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보도자료, 2018. 5. 30.

1인가구는 여가를 어떻게 보낼까?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주중 주요 여가활동은 TV시청이 과반이 넘는 56.4%로 나타났으며, 휴식활동(14.7%), 컴퓨터·게임 등(9.4%), 취미·자기개발활동(6.7%), 스포츠활동(5.7%)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여가 불만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54.4%),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19.7%), 시간 부족(15.1%),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1인가구 일상생활과 관련해 서울시의 201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 중 ‘혼자 여가를 즐긴다’는 비율이 46.4%에 이르며, 혼자 사는 것에서 가장 큰 고충은 주거비용 등 경제적인 측면과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관계적, 감정적 측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밥 먹기’, ‘집 구하기’ 등이다. 특히 1인가구의 일상에서 불편한 것 중 하나는 ‘밥 먹기’인데, 1인가구의 71.9%는 아침을 거르고, 62.2%는 아침이나 저녁 등을 대충 때우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 2015). 이렇듯 1인가구의 일상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할 수 있다.

###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1인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경제활동, 주거, 사회활동, 소비와 여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실 1인가구를 둘러싸고 있는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가 1인가구를 ‘탈 1인가구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회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며 1인가구의 증가가 사회 공동체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생애사

전체를 지나면서 어떤 형태로든 1인가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한 1인가구들은 스스로 선택한 1인가구의 삶보다는 어쩔 수 없는 외부 조건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화 된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3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로 살아갈 만큼 증가했지만 여전히 ‘혼자 사는 사람’들을 향한 ‘비정상성(非正常性)’에 대한 시선이 존재한다.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삶의 형태를 인정하며, 혼자 살아간다는 이유로 삶의 질이 열악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 1인가구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지원과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주거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대안적 주거 모델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거 환경은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장년 1인가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과 공동체 연결성이 약한 편이다.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중장년기에 느끼는 삶의 불안정성과 고립감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중심의 연결망을 통한 지원서비스 정책은 중장년층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 1인가구는 중고령자와 유사한 낮은 경제 지위, 고립감, 배우자의 죽음を経験한 이후 삶의 마무리 단계로의 이행을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개선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맞이할 죽음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영역은 이러한 인구·사회적 변화 속도에 조응할 만한 준비를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1인가구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에서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과 정책 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왜냐하면 1인가구의 문제는 온전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의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다루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박미선 외. 2017.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서울시. 2018. 「2017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서울시의회. 2015. 「서울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